

마데테스



표어 : 믿음이 기쁨되고 용서가 감사되는 교회

은석교회는



자기 행위를 기준으로 타인의
신앙을 판단하는 심판자로
모이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자신의 종교적
업적을 나타내는 일에 마음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생명사건을 존귀하게
바라봄으로 세상 조건의
차이는 사소한 것으로
여깁니다.

동행

신윤식

마치 없는 것처럼
부르지도 않고 잊은 채 살더니
다급해지니 찾는다.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관심도 없이 살더니
어쩔 수 없게 되니 붙잡으려 한다.

마음 둘 곳 없어 막막하니
피할 길 찾다 생각나면
그때서야 깨닫는 무지
고통의 순간 면하려다
손에 잡힌 탈출구 하나

문을 열어 들어서면
어둠 속에 비치는 서광
사랑 앞서 가며
따라오라 손짓 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은석교회

교회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1113-8

홈페이지 : <http://www.onlycross.net>

☎ (교회) 421-9049 (사택) 425-9049 (핸드폰) 019-832-9049
(E-메일) sys5806@hanmail.net

발행인 신윤식 목사

발행일 2011.9.11

발행호수 제19권 36호

예 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 말씀하심으로 우리에게 세상의 끝에 대해 생각하게 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예루살렘의 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세상의 끝에 대해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

서 예루살렘 멸망의 때에 있을 징조를 말씀하시고, 그 같은 징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조를 징조로 보지 못한 채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한마디로 말해서 자신의 삶에 몰두해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 예루살렘의 실상일 것임을 말씀합니다.

사람이 자기 삶에 몰두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에게 삶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신자로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은 본인의 뜻과는 상관없이 주관자의 뜻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놓치지 않는다면 자신의 삶과 타인의 삶을 비교하면서 자신의 현재의 삶에 대해 불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신자로서의 삶의 의미를 생각하고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의 삶에 몰두하게 됨으로써 예수님이 말씀하신 징조들을 보면서 세상상을 향한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못하게 됩니다. 지진이 나고 기근이 있다고 해도 자신의 삶만 무시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재난이 있다고 해도 내 자식 유치원 보내고 학원 보내는 일이 더 신경 쓰이고, 내 일이 더 중요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세상을 향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44절)는 말씀을 하십니다.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은 종말을 믿고 기다리는 신자로서 특별히 준비해야 할 다른 삶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40,41절의 내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데려가고 버려둠을 당한 사람의 삶의 차이는 없습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방식의 삶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데려감과 버려둠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42절). 그리고 깨어 있는 신자의 삶은 어떻게 다

주일오전설교
마 24:45-51

복 있는 종

른가에 대해 말씀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자에게 종말은 단지 시간적 의미로만 다가오는 것이 아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서 시간적 의미란 세상의 종말이 이루어질 날과 시간에 관심을 둔다는 뜻이 아니라 알 수 없는 먼 훗날에 일어날 사건으로 생각하는 것을 뜻합니다. 종말을 시간적 의미로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종말에 대해 말씀하신지 이천년이 지났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뭔가 우리의 인식에서 지금 현재의 사건이 아니라 미래의 사건으로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종말을 시간적 의미에서 생각하게 되면 종말이란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게 되고 결국 현재의 삶과는 관계없는 문제로 여긴 채 자기의 삶에 몰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본문의 비유에서 종말을 단지 기다려야 하는 어떤 때로 말씀하지 않고 삶으로 말씀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45절의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주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이고, 49절의 ‘주인이 더디 올 것이라 여기고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악한 종’ 입니다.

주인이 더디 올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종말을 시간적 의미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시간적 의미로 생각하기 때문에 빨리 올 것인가 더디 올 것인가라는 생각으로 흘러가게 되고 결국 지금까지 오시지 않았으니 더디 올 것이라는 계산 아래 자신의 삶에 몰두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말의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 사는 것이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주인에게 맡은 집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말을 믿는 신자로 사는 것입니다. 반면에 악한 종은 동료들을 때리며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고만 있습니다. 종으로써 할 일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주인이 맡긴 일이 있음을 생각하지 않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자기 생활에 빠져 사는 것입니다.

이처럼 각기 다른 삶을 산 종의 결말은 주인이 왔을 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복이 있을 것이고 악한 종은 벌에 처해지며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앓고 있는 것으로 각기 다르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신자가 감사할 것은 영화나 드라마의 결말은 끝까지 봐야 알 수 있지만 세상의 결말이나 우리 인생의 결말

은 미리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결말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멸망의 때를 살아가는 제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으로 결말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현재의 삶에 대해 실망도 불만도 갖지 말고 신자에게 맡겨진 일을 마음에 두고 살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제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멸망의 때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 주인이 맡긴 집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일을 잘 할 것을 당부하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의 임함'을 재림의 사건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예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기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50, 51 절)는 말씀은 지금 제자들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자리에 있지 아니한다면 그것이 곧 세상 마지막 때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심판으로 이어질 것임을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현재의 삶에 무관심할 수 없습니다. 내 일만 잘되면 된다는 식으로 내 생활에 몰두한 채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멸망의 함정으로 빠뜨리는 어리석은 행보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지혜롭고 충성된 종을 주인이 왔을 때 복 있는 자로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지혜롭고 충성된 종의 자세에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종말을 알고 세상의 끝과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대해 믿는다면 복 있는 자로 말씀한 종에 대해 마음을 두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은 심판의 때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멸망이 아니라 복 있는 자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할 것입니다. 이 같은 마음이 진심이라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의 일을 하며 살고자 하는 것이 옳습니다. 구원은 원하면서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먹고 마시는 것처럼 악한 종의 삶을 즐긴다면 그는 진심으로 구원을 원하는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삶을 즐기자 할 뿐이고 구원은 단지 선택 사항으로 보장받고 싶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삶이 그와 같지 않을까요? 우리는 자신의 삶을 즐기는 것에만 몰두합니다. 물론 삶을 즐기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나의 삶에 즐거움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외면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인에게 맡은 집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일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맡긴 일은 집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일입니다. 때를 따라 주인의 창고에서 양식을 꺼내다가 집 사람들에게 나눠줌으로써 배부르게 하는 것이 종의 일입니다. 종이 이 일에 게으르게 되면 주인의 집 사람들이 양식을 먹지 못해 배고픔을 겪게 됩니다. 그러므로 종이 주인에게 맡은 일을 게을리 할 때 자신으로 인해 양식을 먹지 못하는 주인의 집 사람들이 있게 됨을 생각하면서 양식을 나눠주는 일에 충실한 것이야말로 주인에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자세인 것입니다.

때를 따라 주인의 집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일은 귀찮고 번거로운 일입니다. 이 일에 매이면 자신의 삶을 즐길 수도 없습니다. 주인도 없는데 자기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기회이지 않을까? 이것이 자기 삶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맡긴 일보다는 자신의 즐거움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배고프게 될 주인의 집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이것이 악한 종의 자세입니다.

양식을 꺼내다가 주인이 맡긴 집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존재한 이유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줄 자로 세움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단지 제사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누구시며 그 은혜와 사랑이 어떠한가를 보여줄 도구로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성전 또한 그 기능을 상실한 채 종이 동료들을 때리고 술친구들과 먹고 마시는 방탕한 생활로 전락한 것처럼 성전에서 장사판이 벌어지면서 횡포를 부리는 곳이 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에 멸망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을 향한 것이고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내용임을 생각해 본다면 단순히 예루살렘이 망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성전이 하나님에 맡기신 일을 제대로 행하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의 자리에서 벗어나 동료들을 때리고 술친구와 먹고 마시는 것처럼 자기 생활에 몰두하고 즐기는 악한 종으로 전락하였기에 멸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이 중단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창고에서 양식을 집 사람들에게 나눠줄 종을 세우셨고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주인의 뜻을 따라 양식을 제 때에 나눠주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으로써 존재해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제자들과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신자라는 것입니다.

신자는 애당초 자기의 삶을 즐길 자로 부름 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에 우리가 원하는 삶의 즐거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일을 맡았고 그 일은 양식을 제 때에 나눠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생명이 되는 복음을 나눠줄 자로 부름 받은 것이 신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자기의 일에 몰두해서는 안됩니다. 교회의 성장과 부흥이라는 것에 매이는 것이 교회가 교회의 일에 매이고 몰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는 양식을 나눠주는 것을 번거롭게 여깁니다. 양식을 나눠줘서 주인이 맡긴 집 사람을 배부르게 하는 것보다 내 배부름과 즐거움에 몰두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악한 종의 자세이며 이것이 바로 종말의 때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멸망의 자리에 처할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길로 가면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 그 길로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 누구든 죽는다는 길로 간다면 그것은 그 길이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멸망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길을 가다가 망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길을 가고 있고 그러면서도 멸망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여러분께 맡겨진 종의 일은 양식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한 일이 아니라 주인의 집 사람들의 배부름을 위한 일입니다. 이 일을 하는 그가 자신의 생활이 아니라 주인이 맡겨준 일에 몰두하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입니다.

살아있는 교회

(교회7강 8.21일 설교)

교회를 두고 '살아 있다' 혹은 '죽어 있다' 는 말을 많이 합니다. 물론 사데 교회에 대한 본문의 말씀에서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교회가 살았다 죽었다' 라는 표현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떤 교회를 살았고 죽은 것으로 보느냐는 우리의 시각입니다. 예수님은 사데 교회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다는 것은 사데 교회를 바라보는 외부의 평가를 뜻합니다. 외부에서 바라볼 때는 사데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라는 평가와 칭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 사데 교회는 죽은 자였을 뿐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과 예수님이 바라보는 시각에 전혀 다른 차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외부에서 교회를 보고 살아있다는 평가를 한다면 그것은 외부적으로 드러나고 보이는 왕성한 활동이 있음을 뜻합니다. 기도예 열심을 낸다거나 예배가 뭔가 다르거나 혹은 설교가 다르거나 사회적으로 많은 봉사 활동을 하는 등의 왕성한 활동이 있을 때 그것을 교회가 움직이는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설교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는 등등의 말을 하고 이러한 종류의 책도 볼 수가 있지만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생명을 뜻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생명이 기도 또는 예배, 목사에게 달린 문제는 아닙니다. 교회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관계에서만 언급될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와의 관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는 것으로 생명의 문제가 결정되는 것이지 기도나 예배 목사의 여부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교회가 살아있고 죽어있는 문제에 대해 말

숨합니다. 사람이 죽은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을 구분하지 못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죽은 교회와 살아있는 교회는 과연 구분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 그 중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교회를 두고 살았다 죽었다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평가는 오직 예수님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죽었다는 것은 곧 죄에 속했음을 뜻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써 모든 자가 죽은 자가 된 것이 세상의 실상입니다. 무엇을 하고 하지 않고와 상관없이 죽은 자라는 것이 세상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러므로 외적인 활동 여부를 기준으로 '죽었다 살았다' 라고 말하는 것은 죄의 삶이 무엇이며, 이 세상이 죄에 간혀있음을 알지 못한 소경의 안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활동 여부를 기준으로 살았다 죽었다는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만약 왕성한 신앙적 활동이 신자가 살아있다는 증표라면 몸이 약하고 병중에 있는 신자나 가난한 사람은 '살았다' 는 평가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몸이 약한 사람은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없고, 가난한 사람 역시 사회적인 활동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인간적 시각에서의 '살았다' 는 평가는 지극히 잘못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살았다는 이름을 가진 사데 교회가 주님으로부터는 죽었다는 말을 듣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사데 교회에 많은 행위가 있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많은 행위, 즉 왕성한 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 살아있는 것으로 보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의 행위에 대해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아무리 많은 행위가 있다고 해도 그 행위에 온전한 것이 없다면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가 많은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온전한 것은 완전한 행동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사데 교회의 행위가 뭔가 부족하다는 의미로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히 10:14절에 보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제사장 되셔서 자신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예수님의 그 행위로 온전함을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온전이란 예수님의 죄 용서의 은혜를 입은 거룩의 상태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찾으시는 온전은 신자가 죄 용서의 은혜 안에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 119:1절에 보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여"** 라고 말합니다. 행위의 온전함은 율법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율법을 하나하나 실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의미하는 바를 따라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율법이 의미하는 것은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고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십자가의 은혜로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행위의 온전함이고 율법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온전한 행위를 찾으신 것입니다. 행위에서 이 온전함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행위가 있다고 해도 죽었다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3절에서 회개하라고 하는 것도 사데 교회가 행위는 많았으나 회개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다는 것은 죄를 알지 못하고 십자가의 은혜 또한 마음에 두고 있지 않다는 뜻이기에 사데 교회의 모든 행위는 죽은 자의 행위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죽었다는 말을 듣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대 교회는 외적인 부흥과 왕성한 활동을 통해서 교회의 살아있음을 보여주고자 하고, 또 살아있다는 이름을 갖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의 평가보다는 사람들의 평가에 관심을 두고 있고 사람들에게 좋은 교회로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아야 교회의 전도에 유익이라는 생각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써 주님이 피로써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의 평가보다 세상의 평가에 더 마음을 둔다는 것은 교회가 이니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세상에서의 영광과 이름을 취하고자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온전함에 마음을 두셔야 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예는 민감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세상을 비난을 받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자 하는 것은 교회가 머리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알지 못합니다. 다만 자신의 눈에 비친 대로 말할 뿐입니다. 세상의 윤리와 도덕적 시각에 가까운 교회는 칭찬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교회는 관심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칭찬하는 교회라고 해서 예수님에게 '살았다'는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피로 세우신 교회의 본질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온전함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 용서입니다. 죄 용서의 은혜를 간직하고 그 은혜가 증거되는 것이야말로 교회로서의 참된 본질에 해당되는 것이고, 교회의 온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가 살아있는 것으로 교회가 살았다는 이름을 얻는 것입니다.

용서의 은혜는 어떤 교회든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용서의 은혜 아래 산다면 그 은혜가 부요함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교회의 형편과 시설 그 어떤 것으로도 교회는 부요해질 수 없습니다. 세상이 볼 때는 큰 건물 많은 사람과 재정 등으로 부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교회의 부요는 용서의 은혜를 누림으로써 감사함과 기쁨으로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는 작고 크다는 세상적 평가를 초월하여 예수님의 은혜를 나누며 그것으로 만족할 뿐입니다. 이것이 교회에 있어야 하는 온전함의 모습일 것이고 진정으로 살아있는 교회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

사 람이 누군가의 가르침을 오랫동안 받게 되면 자연히 그 사람의 사상에 동화되는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선지자와 이스라엘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선지자의 등장 역사는 짧지가 않습니다. 사무엘 시대로부터 시작하여 수백 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선지자의 말에 그 어떤 영향도 받지 않았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완고함이 그만큼 강력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도 하나님께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후에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받을 때까지 약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40년은 한 개인이 말씀을 전하는 기간으로서는 짧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럼 4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면 뭐가 그 말에 동화되고 깨닫는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유다는 선지자의 말을 받아들이기는커녕 배척하고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 와서 전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동일한 반응을 보였을 뿐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러한 유다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 예레미야를 부르신 내용은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모친의 뱃속에 잉태되기 전부터 알았고 그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처럼 예레미야는 선지자의 길을 가도록 잉태 전부터 하나님의 뜻에 의해 결정되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레미야의 인생에 개인적인 계획과 뜻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선지자의 길을 가도록 작정되어진 예레미야에게 세상에서 무엇이 되겠노라는 개인적 포부와 뜻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개인적으로 어떤 뜻을 세우고 포부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미 차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입장은 다르지 않습니다. 선지자로 부름 받은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우리가 신자로 부름 받은 것 역시 하나님의 뜻이 신실하게 실행되어진 결과입니다. 엡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예정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정하시고 부르신 뜻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신자로 부름 받은 것에는 창세전부터 작정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안다면 신자가 마음에 두지 말아야 할 것은 자기 영광을 위한 인생입니다. 자

수요일설교

렘 1:1-10

**예레미야를
부르심**

(1강 8.17일 설교)

기 영광과 자기 성공 자기 이름을 드높이기 위한 인생과 신자는 서로 상관없는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신자로 부르시면서 이 같은 말씀을 하셨다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예 말려만 주십시오’ 라며 자신 있게 나서시겠습니까? 아니면 예레미아처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니이다”** (6절) 라고 말하며 사양했습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은혜의 영광을 높이는 신자로 살아가지 못할 사람들입니다. 누가 자기 속의 욕망이 원하는 인생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뜻과 목적을 따라 살려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곧 자기 인생을 포기하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사양하려고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역시 자신이 아이라 말할 줄을 모르다면서 선지자로의 부름을 사양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7,8절)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면 되었고 무엇을 명령하든지 말하면 되었습니다. 이것이 선지자다운입니다. 때문에 아이라서 말할 줄 모른다는 것은 선지자의 일에 지장을 초래하는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자신을 아이라고 하면서 말할 줄을 모른다고 한 것은 선지자의 일을 자신의 능력으로 해야 하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지자의 일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곳으로 가면 되었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말하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삶이말로 무척 힘든 고난의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모든 행동과 결정의 기준은 자신의 이익입니다.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말이나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신자로써 해야 할 말인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인가’ 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 말을 하면 저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나에게 득이 되지 않겠다’ 라는 생각으로 할 말과 하지 않을 말을 가리게 됩니다.

그런데 선지자의 길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보내시고 말하게 하신 것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다고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소위 어른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사장, 장로, 서기관들이 있었고 연령적으로도 어른들이 많았습니다. 반면에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을 당시는 약 20세 정도 되는 나이였음을 생각해보면 자신을 아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부름에 사양하는 예레미야의 마음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뛰어넘게 잘 아는 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모로 선지자의 일을 감당할 수 없어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는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니 예레미야가 어딜 가든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말라는 말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주시는 해답이기는 하지만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도 이 말씀 한마디로 용기를 얻고 두려움이 없이 선지자의 길을 나선 것은 아닐 것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계속해서 두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19절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는 말씀을 반복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고 말씀이 강력한 신력의 힘으로 다가올 때 신자는 말씀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현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신자의 담대함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함께 하고 계십니다. 홀로 보내시고 홀로 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보내신 그 길에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신자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신자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은 신자가 하나님의 뜻에 붙들려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붙들려서 인도받는 신자를 해할 세력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이 믿음으로 신자는 두려움 대신 담대함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신자의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전예배 ■

11시 / 인도 신윤식 목사

묵상기도 : 다 함 께

신앙고백 : 다 함 께

찬 송 : 9장

교 독 : 17(시29편)

기 도 : 조규현 장로

찬 송 : 391장

성 경 : 마 24:45-51

말 씀 : 복 있는 종(153강)

기 도 : 설 교 자

찬 송 : 321장

교회소식 : 이영민 장로

찬 송 : 6장

축 도 : 설 교 자

■ 오후예배 ■

2시 20분 / 인도 신윤식 목사

신앙고백 : 다 함 께

찬 송 : 252장

기 도 : 오현주 집사

찬 송 : 303장

성 경 : 롬 10:5-10

말 씀 : 교회와 구원(교회 10강)

기 도 : 설 교 자

찬 송 : 262장

주기도문 : 다 함 께

■ 수요일예배 ■

7시 30분 / 인도 신윤식 목사

예레미야 강해(5강)

■ 교회소식 ■

1. 18일 주일 오후예배는 은석교회당에서 대구지역 재건교회 연합으로 모입니다.(설교:정일균선교사)
2. 20일(화) 오후 7시부터 재건교회 총회가 마산교회당에서 있습니다.



다음주 기도

오전 - 이영민 장로 오후 - 박영선 집사

신자로 사는 인생 ⑦

예수님의 부름의 목적은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는 말씀에 분명히 드러나 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모으는 일에 헌신하도록 부르신 것이다. 이것으로 하루하루 고기를 잡으며 자기를 위해 살아가던 제자들에게는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는 사명과 함께 인생의 새로운 의미가 시작된 것이다.

신자로 부름 받은 우리도 다르지 않다. 우리는 모두 무의미한 삶에 집착한 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게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이다. 제자들의 기존의 생활을 모두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것처럼 우리 역시 기존의 삶을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물론 기존의 생활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목적과 의미를 자기에게 둔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새로운 방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이기에 예수님을 오해 하기도 하고 배척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길이 진리고 생명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고 아직도 예수님에게 붙들려 제자의 길을 가기로 매주일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며 다짐하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신자는 현재의 삶에 대해 누구를 탓하거나 원망할 수 없다. 삶의 목적과 방향 자체가 자신도 현재의 삶도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있기 때문이다. 만약 현재의 삶에 대해 원망이 있다면 그것은 신자로서 자신이 가는 길에 대해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아예 처음부터 제자의 길에는 관심이 없이 자기 배부름을 위해 예수를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 교회의 신앙은 예수님이 지향했던 하나님과 그의 나라 대신 맹목적인 예수 숭배에 빠져 버린 철저히 왜곡된 다른 신앙이다. 이로 인해 같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가려고 하기보다는 그를 믿기만 하면 복을 받고 구원 받는다는 기복신앙의 길로 빠져 버린 것이다. 예수님이 가신 섬김과 희생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은 보이지 않고 주여 주여 하고 이름만 부르면서 자기 영광을 위한 맹목적인 예수 숭배의 사람으로 가득한 현실에서 조직과 제도로 굳건히 짜인 교회도 많고 교인들도 넘치지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게 된 것이다.

현대 교회가 잊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을 찾기 위해 오셨다. 예수님은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시고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것이 우리에게서 의와 생명이 된 것이다. 이처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시고 생명이 되심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신자의 존재이유인 것이다. 저주에 갇힌 자에게 희망은 돈이 아니라 예수님이다. 교회는 바로 우리의 희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데 교회가 교회에 관심을 두고 교회를 위해 예수를 전함으로써 교회됨에서 벗어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